부처님은 지금도 오신다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지난 5월 1일, 음력 3월 보름날. 부처님 고향 네팔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네팔의 웨삭(Vesak)은 보통 음력 4월이지만, 수십 년 만에 음력 3월 보름이 봉축일이 돼 한국에서 온 30여 명의 순례단과 함께 히말라야 자락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법회 전날 밤, 저녁 늦게까지 연등 작업을 마치고 잠시 기지개를 켰다. 그 순간 설산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온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이 안나푸르나 만년설 위에 내려앉자, 하얀빛 속에서 설산의 장엄한 자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풍경이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순례자들은 저마다 감탄과 환희를 쏟아냈다. "부처님이 정말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큰 복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부처님을 만나고, 나아가 나 자신 안에도 부처의 위대한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 복이다.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우주처럼 넓고 크며 어디에도 걸림 없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네팔 봉축법회를 마친 뒤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5월 24일, 음력 4월 초파일에는 소백산 양백정사와 서울 홍대선원, 그리고 뉴욕 조계사에서 각각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양백정사에서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도반인 백담 스님이, 홍대선원에서는 일본 출신 법

불탄일 맞아 부처님 만난 큰 복에 감사
진정한 봉축, 오늘을 축복하는 데 있어
자비·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여 스님과 선태극권 마스터 법증 스님이, 뉴욕에서는 재작년 홍대선원에서 출가한 정훈 스님과 내가 법회를 이끌었다. 처음으로 JustBe 승가 대중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봉축법회를 회향했고, 문득 깊은 감사가 일어났다.

특히 뉴욕 조계사는 1978년 숭산 스님께서 맨해튼에 세운 첫 한국 사찰의 법맥을 잇고 있는 도량이다. 2003년 묘지 스님이 현재의 센트럴파크 어퍼웨스트 지역으로 이전해 중창불사를 이뤘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한 센트럴파크 곁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후학들이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것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진리의 이치를 다시 새기며, 도반들과 화합의 장을 열어 한바탕 야단법석을 펼친다. 하지만 그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는 특별한 의식이나 화려한 행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봉축은 오늘을 축복하는 데 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 탐욕·분별을 내려놓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곧 새로운 탄생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태어남의 기쁨으로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오신날을 가장 온전히 기념하는 마음일 것이다.

종정 스님의 하하하 법문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수선피우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야단법석이라고 하지만 본래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활짝 열린 절의 앞마당에서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법문을 듣는 법다운 자리를 가리킨다.

올해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여법한 야단법석이, 인터넷에서는 와글와글 댓글이 쏟아진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종정 스님의 법문이 한창인데 행사를 진행하던 누군가가 스님 법문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일은 벌어졌다. 급기야는 종정 스님의 법문을 마친다는 목탁 소리가 퍼졌고 진행자의 마무리 멘트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한창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살림을 바로 살아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이 뚝 잘린 것이다. 경내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모두들 당황했지만 더위에 지쳐갈 즈음이라 박수로 화답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지"라는 조금 당혹스런 종정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으나 이미 대중은 법요식을 파하고픈 마음을 박수로 쏟아낸 뒤였다.

그때 마이크를 타고 종정 스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하하하…." 불교계 가장 큰 어른의 권위가 내외 귀빈과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던 그

종정 스님 법문 도중 중단된 야단법석
독선·권위 대신 환한 웃음으로 마무리
내공 깊은 "하하하" 법문 잊지 못할 것

찰나 들려온 스님의 즐겁고 환한 웃음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유튜브에는 각본에 없는 초유의 이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의 실시간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체로 불교의 진면목을 봤다는 기분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독선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불교계 큰스님의 넉넉한 품에 존경을 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조계종 종정이 참 못난이입니다"라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해 강제로 내려가게 됐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시며 법문을 마무리하신 모습은, 외람되지만 평상시 단단히 마음공부하신 내공이 대번에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맛지마 니까야〉에 들어 있는 '짱끼의 경'에는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 순서가 자세하다. 어떤 수행자가 훌륭하다는 소문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데 소문만 믿고 스승으로 모시기에 앞서 그 수행자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부처님은 당부하셨다. 그 수행자가 과연 소문대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범부가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수행자를 스승으로 모실 만한지 판단이 선다는 것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는 종정 스님의 그간의 수행력이 대한민국 사람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리고 확인했다. 그 내공은 이렇게 뜻밖의 기상천외한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스님의 자유롭고 유쾌하며 온화한 "하하하" 법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삼배를 올립니다.

社 說

불자 정치인 부재,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불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자 정치인 부족'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인적 기반이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물론 특정 종교를 가진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정책과 자질,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뿌리이자 국민 정신문화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에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인재 부족' 현상
청년 인재 발굴 · 지원 체계 구축 나서야

더욱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치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종교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불교계와의 소통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 안에 불교를 이해하는 인재가 부족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가. 과거에는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쌓은 불자 정치인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며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 불자 감소와 신행 기반 약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부재가 맞물리며 정치권에서 불교계의 존재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치에 입문한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숨기거나, 심지어 종교를 바꾸는 사례가 나타나는 현실도 되새겨볼 대목이다. 이를 개인의 신심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불교계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또 어렵게 성장한 인재들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는 선거 결과를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청년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최근 새로운 불교문화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으로 연결해야 한다. 법조·행정·교육·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불자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자 정치인을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불자 정치인의 역할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사회 통합, 생명 존중과 공공선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이제라도 인재를 길러내고 지키는 일을 한국불교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선거 때마다 불자 정치인이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그 인재를 키울 토양을 얼마나 정성껏 가꾸어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하계수련교육

대한불교대승종은 아래와 같이 불기 2570년 하계수련교육을 봉행합니다.

■ 일시 : 입재 6월 26일 11시 / 회향 6월 27일 12시
■ 장소 : 문강유황온천호텔(충북 충주시 살미면 팔봉로 1061)
■ 문의 : 대승종 교육원(010-5165-0108)
총무원(055-862-6470)

교육은 대승종 전 종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행과 종단 교육을 통해 불국토 구현의 뜻을 다지는 자리로 교육 기간 중 금강계단을 설치해 득도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6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6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